대입 지형 흔든 ‘사탐런’…상위권 경쟁 과열·중위권 혼란 가중

사탐 1~2등급 작년보다 1만8천여명 늘고 과탐은 1만2천여명 감소
중상위 이과생 ‘사탐런 역효과’…광주시교육청, 11일 정시전략설명회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수능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사탐)로 몰려간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올해 대입 당락을 가를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특히 사탐 2등급 이내에 속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30%나 증가하면서 상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사탐 9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인원은 총 7만96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6만1236명)보다 무려 1만8375명(30.0%) 증가한 규모다.

선택과목별로 보면 작년 대비 사회문화가 9496명(48.0%), 생활과윤리는 5180명(29.0%), 윤리와사상은 1357명(29.8%)이 각각 늘었다.

반면 과학탐구(과탐) 8개 과목의 2등급 이내 인원은 작년(4만9920명) 대비 1만2612명(25.3%) 감소한 3만7308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사탐런 현상에 탐구영역 간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특히 사탐 2등급 안에 든 수험생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도 정시모집 지원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탐구영역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탐과 과탐 모두 6점으로 나타났다.

사탐에선 세계지리가 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와법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탐은 생명과학Ⅰ이 74점, 물리학Ⅱ가 68점이었다.

종로학원은 “탐구 과목 간 등급 인원과 점수 차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정시는 물론 수시에서도 사탐런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대학별로 발표되는 탐구 변환점수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가 작년엔 사탐 11점, 과탐 8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메가스터디는 “작년에는 과탐보다 사탐 최고점이 높은 과목들이 있어 사탐 응시자가 자연계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탐이 67~73점, 과탐은 68~74점으로 고르게 나타나 과목 간 유불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사탐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돼 ‘사탐 만점자’의 이점은 커졌으나, 중상위권엔 사탐런이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진학사는 “사탐런을 한 이과생의 경우 사탐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으면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연계열로 지원하기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리하다”며 “이런 수험생들은 이중고를 겪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 사탐만 선택한 인원은 60.04%(28만4천535명)를 기록했다.

사탐 1과목·과탐 1과목 응시생 8만1023명(17.10%)까지 합하면 사탐 1과목 이상 응시자는 77.14%에 달한다.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2.86%(10만8353명)에 그쳤다.

한편, 시교육청은 11일 오후 4시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수능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부터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23일(일요일 제외)에는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학전문교사 48명이 ‘정시모집 대비 1대 1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몽골 배구스타 인쿠시,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 위촉
다문화 이해·글로컬 교류 상징…전남학생 멘토로 활동

김대중(오른쪽) 전남도교육감과 배구선수 인쿠시가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 위촉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이 몽골 출신 배구선수 인쿠시를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지난 5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대중 교육감과 인쿠시가 배구공에 각각 사인했으며, 인쿠시는 자신의 사인 유니폼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인쿠시는 앞으로 다문화 이해 확산과 국제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전남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맡게 된다.

인쿠시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초등학생 때 배구를 시작했고, 2022년 목포여상으로 배구 유학을 와서 현재는 목포과학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강한 서브와 안정적인 리시브로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졸업 후 몽골 리그 ‘에나코리 몬티’에 입단해 2023-2024 시즌과 2024-2025 시즌 연속 올스타에 선발되며 스타 선수로 인정받았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에서 ‘필승 원더독스’ 멤버로 활약하며 ‘넵쿠시’라는 애칭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성장형 캐릭터로 공감을 받았다.

위촉 이후 인쿠시는 ‘성장과 도전’을 주제로 한 홍보 콘텐츠 제작, 학생 대상 멘토링 특강, 글로컬 교류 프로그램 등 전남교육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존경받는 인물을 명예대사로 위촉해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과 전남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릴 명예대사로 전남교육이 배출한 몽골 배구선수 인쿠시를 위촉하게 기쁘다”라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소중한 멘토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제2회 한-우즈벡대학총장 포럼
호남대 참석 교육협력 기반 강화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과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최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제2회 한-우즈벡 대학총장 포럼’에 참석, 우즈베키스탄 주요 국립대학과의 교육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 행사는 한국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25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단이 참여해 미래 고등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호남대학교는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나망간 국립기술대학교 ▲나보이 국립대학교 등 4개 국립대학교와 전략적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 및 업무협약 의향서(LoI) 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학생·교수 교류, 공동 연구 수행, 학술행사 공동 개최, 복수학위 추진 등 실질적 국제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박상철 총장은 “AI 시대 글로벌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포럼 주제는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국제 협력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대학과의 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들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넥스트코리아, 동강대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참여
PC·모바일 등 접속환경 자동맞춤 ‘반응형 웹 사이트’ 개발

“하나의 웹 사이트를 만들면 보통 PC 버전, 모바일 버전으로 나눠 서비스합니다. 하지만 ㈜넥스트코리아가 개발한 기술은 사용자의 접속 환경을 자동으로 맞추는 ‘반응형 웹 사이트’입니다.”

지난 6월 반응형 웹 사이트, 쇼핑몰, 모바일 APP의 개발 및 컨설팅 업체로 창업한 ㈜넥스트코리아(NEXT KOREA).

강동호 대표는 IT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음을 기약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으로 기업 명을 ‘NEXT KOREA’로 정했다.

강 대표는 웹 개발자 출신답게 ‘스타트 업’의 첫 도전 아이템으로 ‘반응형 웹 사이트’를 내놓았다.

그는 “‘A’라는 웹 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인터넷 브라우저나 PC, 모바일 등 접속 환경이 전혀 다른데도 서비스되는 웹 사이트는 획일화 됐다. 그래서 ㈜넥스트코리아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다양한 접속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강 대표는 “기술의 핵심은 접속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넥스트코리아는 동강대 BI(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광주·전남지역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강대 BI센터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한국창업보육협회)의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 광주 유일의 지역 거점형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광주대, 순천대, 동신대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강동호 대표

강 대표는 “지난 9월 동강대 BI센터에 입주했는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실 좀 놀랐다.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돼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반응형 웹 사이트’ 외에 강 대표가 추진하는 사업 아이템은 모바일 중개 플랫폼인 ‘쿠폰 핑’이다.

‘쿠폰 핑’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강 대표의 마음이다.

강 대표는 “사실 비슷한 사업 아이템이 많아 고민스럽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구상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각 지자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소상공인들의 효과적인 마케팅과 매출 증대에 꼭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전남대, 호남권 유일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선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 참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해외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 역량과 유학생 관리체계, 교육여건 전반에서 전남대가 국가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K-STAR 비자트랙은 기존 5개 과학기술원(KAIST·DGIST·GIST·UNIST·POSTECH)에 한정해 운영되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유학생 관리체계와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25개 일반대학으로 확대·개편한 제도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국내로 적극 유치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학교 총장은 우수 유학생을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유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거주자격(F-2)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소 6년이 걸리는 영주자격 취득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갖춘 경우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외국인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연간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약 4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 인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현재 전 세계 65개국 656개 고등교육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탄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명문대학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조진형 대외협력처장은 “호남권 대학 중 전남대가 유일하게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컬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